대범하게 우주 사업을 시작하는 중국의 민간 벤처기업

작성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홍택 (책임연구원)

우주는 국유 기업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민간 기업의 마지막 보루의 개척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찻잔(teakettle) 크기의 위성이 우주로 발사 될 것입니다. 큐브 셋이 지구를 한 시간에 수만 킬로미터 쯤 회전 시키면 중국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천문학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Commsat의 공동 설립자 겸 CEO인 Peng Yuanyuan은 "민간 기업은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15년 세계 우주 경제는 3230억 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The Space Foundation에 의해 발표 된 The Space Report 2016에 따르면 상업 활동은 최대 76%, 즉 2천 460억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상업용 우주 시장은 2020 년까지 8000 억 위안 (1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될 것으로 중국 증권가 (China Securities Journal)는 보도했다. 이미 지난달 11 월 과학계를 위해 새 나라 소년들이 스페이시티(Spacety)와 함께 마이크로 위성 Xiaoxiang No 1, Ty-1을 선보였다.

Spacety의 설립자이자 CEO 인 Yang Feng은 회사에서 롤아웃 하는 다음 다섯 개의 위성은 비록 세부적인 재무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모두 "완전히 예약"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위성이 올해 하반기에 발사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Commsat은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계획된 교육용 인공위성의 비용을 거의 보상했다고 Peng는 강조했다. "우리는 비용을 크게 추가하지 않고도 우주선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펑(Peng)은 Commsat가 올해 재정 지출수치를 공개하기를 거부했지만 올해 3000만 위안의 수익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는 베이징, 광저우, 안후이, 상하이에 있는 70개 이상의 공립학교와 천문학 코스에서 빔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ASI Cloud.com에 따르면, 4월까지 총 14개의 상업용 우주 회사가 개인 소유의 10개를 포함하여 이 나라에 등록되었습니다. CASI Cloud.com은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

올해 후반, 알리바바 그룹 지주 회사(Alibaba Group Holding Ltd)는 맞춤형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전자 상거래 위성을 출시 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이미지에서 제공하는 농업 재배 및 수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회사는 "세계 최고의 야채"를 사고 팔 것이라고 약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그룹은 우주에서 첫 발을 내딛는 데 치명적이다. 경쟁사 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Ltd)는 2013 년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우주 기업가 그룹이 설립 한 신생 기업인 문 익스프레스(Moon Express)에 투자했다.

2015년에 중국의 최고 경제 기획기구인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재정부와 국방부의 과학 기술 산업위원회와 함께 상업 우주 부문의 10년 청사진을 발표 이후로 이 신생 기업은 Matrix Partners China,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 및 Cash Capital과 같은 유명한 투자자를 끌어 들였습니다. 그러나 우주선과 인공위성의 복잡성과 숙련 된 인재 부족으로 인해 업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주 창업 회사에서 일하는 핵심 인물 대부분은 국영 기업에 고용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Northern Light Venture Capital의 Huang은 말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늘어나는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직업을 구축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을 찾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장면 예시

○ 참고자료

- To boldly go where no startup has gone before, Xinhua News Beijing(XNA), August 28, 2017 by Jing Shuiyu